

numbers 제 124호



주요 내용

2021.12.17

1. 이번 주 주제 : [1인 가구 실태]
대한민국 3가구 중 1가구, '1인 가구'!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미국인의 크리스마스 인식]
미국인, '예수는 2000년 전에 실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72%!
 - [국내 대학 미래 생존율 예측]
국내 대학, 25년 후 현재의 절반만 생존!
 - [국가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현황]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한국' 88kg으로 세 번째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대한민국 3가구 중 1가구, ‘1인 가구’!

‘어쩌면 우리 모두 1인 가구’. 최근 발행된 따끈따끈한 신간의 제목이다. 이 책은 법무부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일명 사공일가)’ TF팀의 1인 가구를 위한 법률 개정 과정을 담은 책이다. 반려동물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제98조2)’, 혼자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을 의무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2)’ 등 우리사회에 큰 파급력을 일으킨 사공일가의 개정안들은 알고 보면 모두 1인 가구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1인가구가 대세인 것 같다. 2019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 중 부부+자녀 가구를 제치고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고, 작년 말(2020년) 기준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 세대는 올해 들어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했다. 1인 가구 증가는 1인 체제하에 ‘나홀로 문화’라는 우리 사회 트렌드 변화를 가져왔고, 교회도 그 영향권 하에 들어왔다. 1인 가구는 이제 트렌드를 넘어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현상이자 미래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124호에서는 1인 가구와 관련한 통계와 현상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인 가구 실태를 비롯해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우리사회의 변화 방향을 들여다본다. 교회에서도 1인 가구 현상에 대한 고민이 많을텐데, 이 보고서가 1인 가구 사역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을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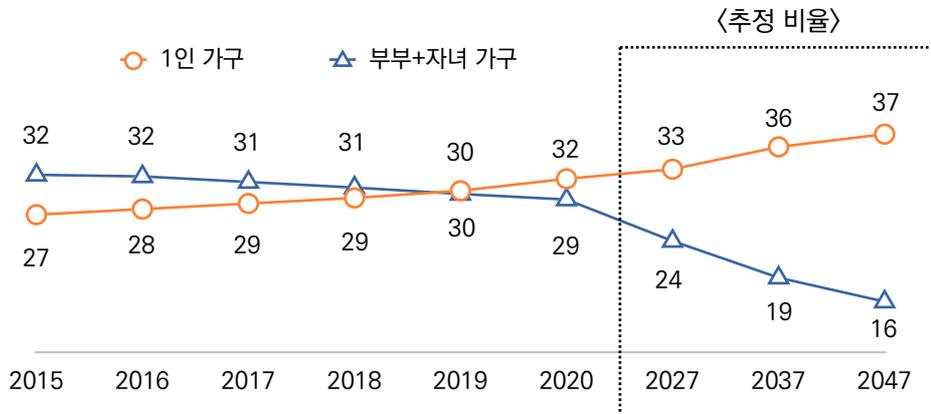
1



2020년 3가구 중 1가구, '1인 가구'!

- 통계청의 2020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32%(총 2,093만 가구 중 664만 가구)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까지 전통적으로 '부부+자녀' 구성의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었는데 2019년부터 '1인 가구'가 '부부+자녀 가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 25년 후에는 '부부+자녀 가구'는 16%까지 줄고 '1인 가구'가 37%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1인 가구 비율 추이 및 추계(부부+자녀 가구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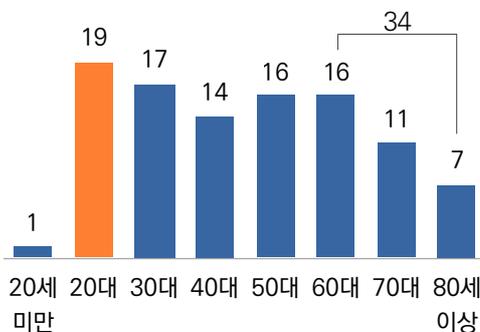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1.07.29., 통계청 '장래가구 특별추계' 2019.12.16.

● 1인 가구, 20대가 19%로 가장 많아!

- 1인 가구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20대가 1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은 34%로 3명 중 1명 꼴이다.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까지는 남자 비중이 높고, 60대 이후는 여자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 여성 1인 가구는 60세 이상이 46%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그림] 1인 가구 연령별 비중(2020) (%)



[그림] 1인 가구 성·연령별 비중(2020)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1.12.08.,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1.0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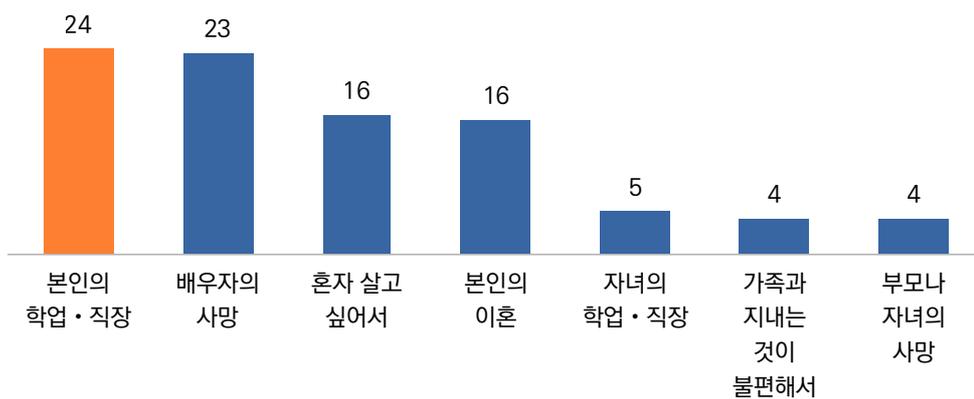
● 1인 가구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과 ‘혼인상태 변화/자녀 독립’으로 인한 ‘중장년/노년’으로 구분!

- 1인 가구가 되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는, 50대 이상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높고, 40대 이하에서는 ‘부모’, ‘30세 이하’에서는 ‘형제/자매’가 높게 응답됐다. 한편, 1인 가구의 사유로는 ‘본인의 학업, 직장’, ‘배우자의 사망’ 등이 높게 나타났다.
- 종합해보면, 1인 가구는 두 종류의 집단으로 나뉘는데, 한 부류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분가한 청년 1인 가구, 또 다른 부류는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살다가 혼인상태의 변화나 자녀의 독립으로 1인 가구가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표] 1인 가구가 되기 전 함께 살았던 사람(상위 4위, 복수응답, %)

구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전체	46	38	28	13
20세 미만	0	91	0	40
20~29세	1	89	1	43
30~39세	5	81	4	29
40~49세	29	56	23	12
50~59세	55	24	52	4
60~69세	64	13	46	2
70세 이상	78	6	31	1

[그림] 1인 가구 사유(상위 7위, %)



*자료 출처: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1.12.08.,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1.5. (전국 12세 이상 가구원, 10,998가구, 면접조사/인터넷조사, 2020.9.8.-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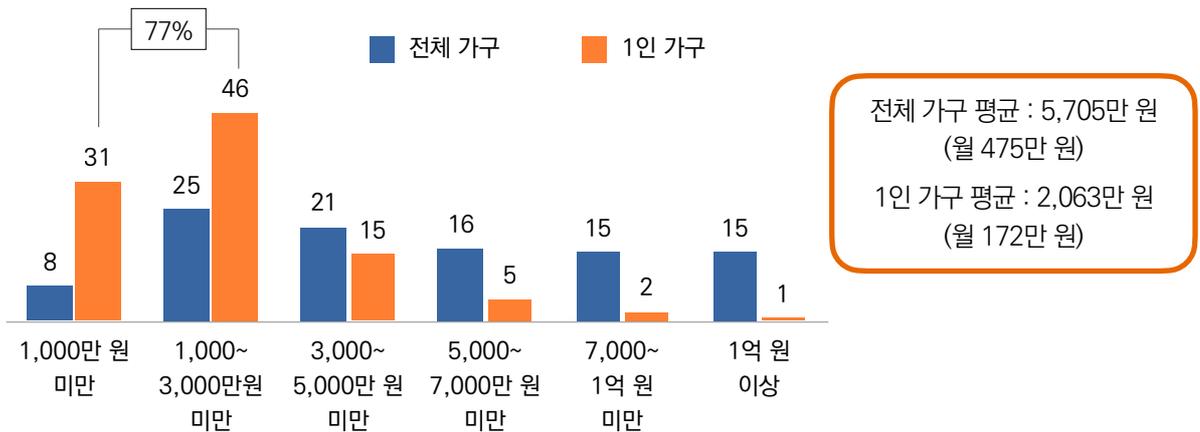
2



1인 가구 연 소득, 전체 가구의 36% 수준!

- 1인 가구의 77%는 연소득이 3천만원 미만이며, 평균 연소득은 2,063만원으로 전체 가구(5,705만원)의 36% 수준이다.
- 1인 가구의 연 소득 2,063만 원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72만 원으로 월 소득이 채 200만원이 안 되고 있다.

[그림] 1인 가구 연소득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1.12.08.,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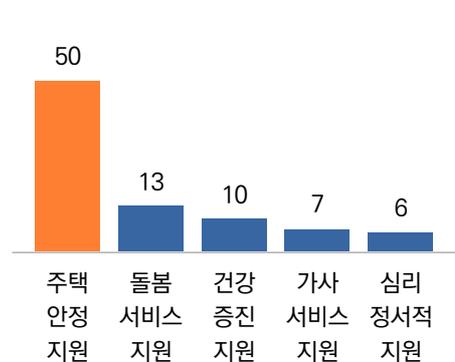
● 1인 가구, 주거비 부담 크며 주택 안정 지원 필요!

- 전체 가구는 주요 지출 분야가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인데 비해, 1인 가구는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전체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1인 가구가 희망하는 지원 정책에서도 '주택 안정 지원'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그림] 1인 가구 주요 소비지출* (상위 4위)



[그림] 1인 가구 지원 희망 정책**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1.12.08., 통계청 '2020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1.0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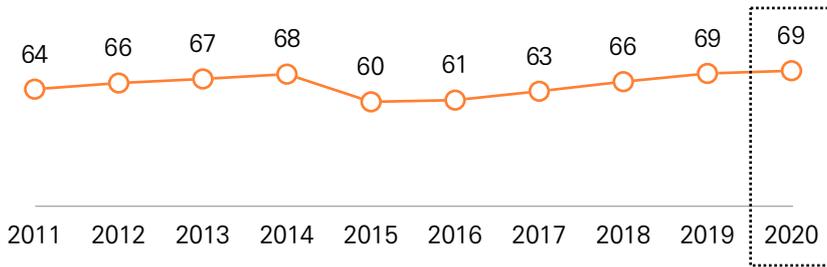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1.5. (전국 12세 이상 가구원, 10,998가구, 면접조사/인터넷조사, 2020.9.8.~9.18.)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가구 중 7가구는 1인 가구!

-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약 101만 3천여 가구로, 이는 전체 수급 대상 가구의 69%에 달한다.
- 전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 Not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는 월 87만8597원(1인 가구 기준)임.

[그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21.0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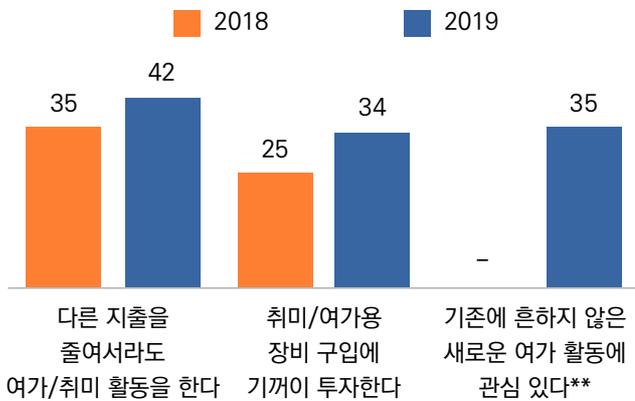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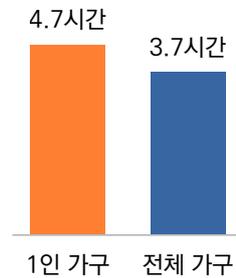
1인 가구, 여가 활동에 적극적!

- 1인 가구 5명 중 2명 이상(42%)은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여가/취미 활동’을 하며, ‘취미/여가용 장비 구입에 기꺼이 투자’하는 비율도 1년 새 9%p 증가했다.
- 1인 가구가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인 가구의 여가/취미에 대한 인식* (%)



[그림] 1하루 평균 여가 시간***



*자료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만25~59세 1인 가구, 2000명, 온라인조사/면접조사, 2019.4.1.~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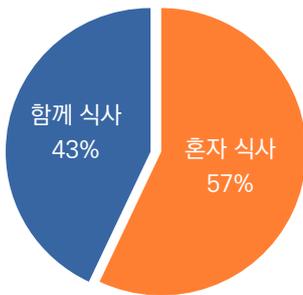
**2019년 신규 문항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전국 만15세 이상 남녀 10,088명, 가구방문면접조사, 2020.09.07.~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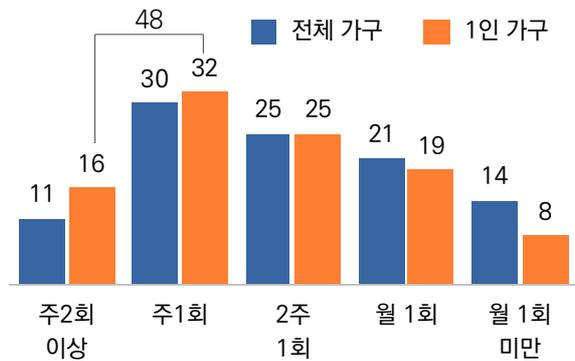
● 1인 가구, 식사의 3/5은 ‘혼밥’!

- 1인 가구는 하루 평균 2.3끼의 식사를 하며 5분의 3 정도(57%)를 ‘혼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인 가구의 절반 가까이(48%) 주1회 이상 간편식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가구(41%) 보다 7%p 더 높은 수치이다.

[그림] 1인 가구의 주중 혼자 식사하는(혼밥) 비율*



[그림] 1인 가구의 간편식(즉석 섭취 식품) 구입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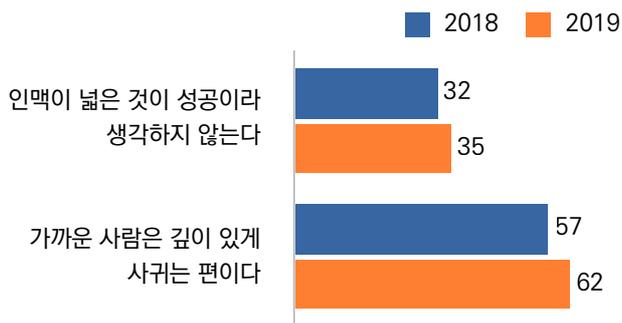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만25-59세 1인 가구, 2000명, 온라인조사/면접조사, 2019.4.1.~4.21.)

**자료 출처 :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0.12.08,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019.12.

● 1인 가구, 소수의 깊이 있는 인간관계 지향!

- 1인가구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은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도 엿보이는데, 1인 가구 3명 중 1명은 '인맥이 넓은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3명 중 2명은 '가까운 사람은 깊이 있게 사귀는 편'이라고 응답해, 자립적인 인간관계 가운데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인 가구의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 (그렇다 비율)**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만25-59세 1인 가구, 2000명, 온라인조사/면접조사, 2019.4.1.~4.21.)

**3점 척도 질문으로 그렇다, 보통, 아니다 중 그렇다 비율임

4



1인 가구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자아상), ‘자유롭고’, ‘편안한’ 사람!

- 1인 가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자아상)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립되는 이미지의 두 형용사를 제시하고 자아상을 선택하게 한 결과, ‘자유로운’, ‘편안한’, ‘여유로운’, ‘자립심 강한’ 등의 이미지가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다만, 1인 생활에 불만족하는 사람에서는 ‘우울한’, ‘초라한(안쓰러운)’, ‘자기 관리 못하는’ 등의 부정 이미지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1인 가구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자아상)
(중복응답, 1+2+3 순위)



[그림] 1인 가구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
(만족자 vs 불만족자, 1+2+3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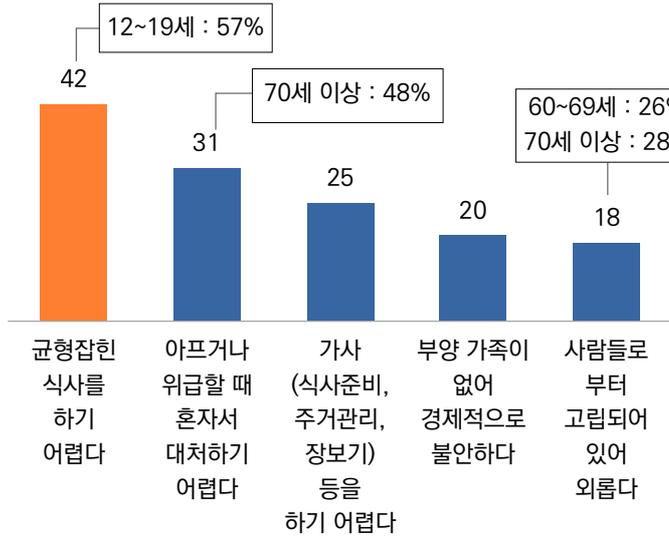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만25~59세 1인 가구, 2000명, 온라인조사/면접조사, 2019.4.1.~4.21.)

**3점 척도 질문으로 그렇다, 보통, 아니다 중 그렇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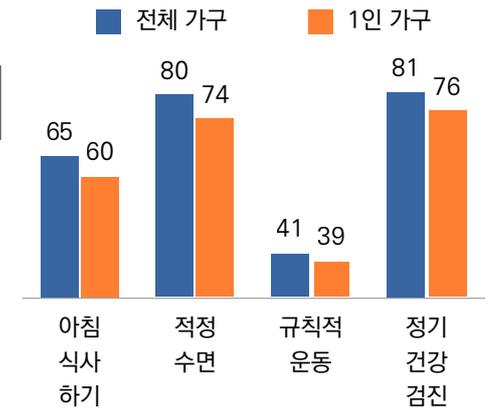
● 60대 이상 고령층 1인 가구 4명 중 1명 이상 '고립감' 높아

- 1인 가구로 생활하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움'이 가장 많이 꼽혔다 (42%).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외롭다'는 응답이 4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 1인 가구는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워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식사',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등 모든 항목에서 전체 가구 평균 대비 낮은 실천률을 보였다.

[그림] 1인 가구의 어려움*(상위 5위, %)



[그림] 1인 가구 건강 관리('실천한다' 비율,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1.12.08.,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1.5. (전국 12세 이상 가구원, 10,998가구, 면접조사/인터뷰조사, 2020.9.8.-9.18.)

**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설문함. 제시된 비율은 항목별 '그렇다(대체로+매우)' 비율임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1.12.08., 통계청 '사회조사' 2020.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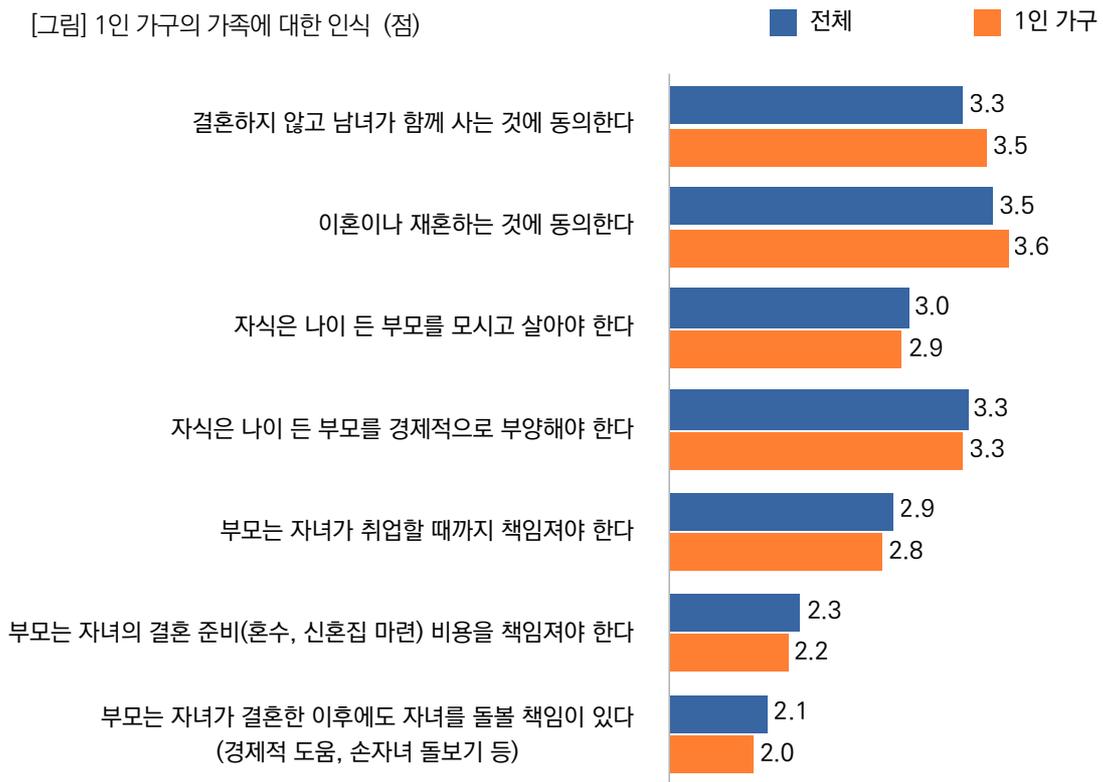
5



1인 가구의 가족에 대한 인식, 개방적이고 독립적!

- 1인 가구의 비혼 동거, 이혼/재혼, 부모 부양 및 자녀 책임 등 가족 및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율, 이혼/재혼 동의율은 1인 가구가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부모 부양 책임과 자녀 돌봄 책임에 대한 동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즉,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가족 및 가족관계에 대해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1인 가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인 가구의 가족에 대한 인식 (점)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가족학회 '가족실태조사 학술세미나 자료집' 2021.12,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1.5. (전국 12세 이상 가구원, 10,998가구, 면접조사/인터넷조사, 2020.9.8.~9.18.)

** 각 항목별 5점 척도로 설문함. 제시된 점수는 5점 척도의 평균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율이 높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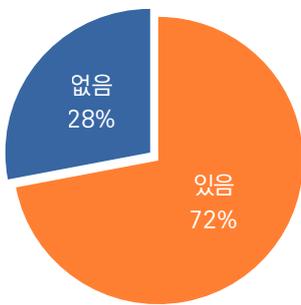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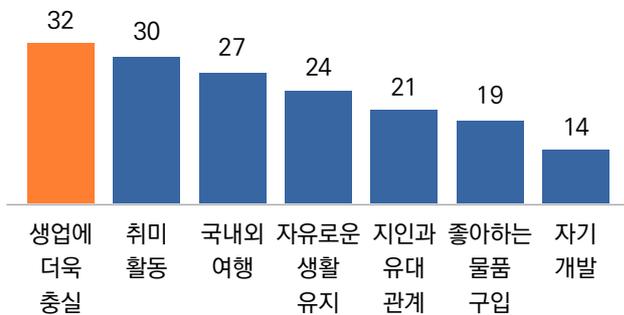
1인 가구 10명 중 7명,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

-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사람의 10명 중 7명은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를 지속할 의향은 남성(63%)보다 여성(80%)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1인 가구가 결혼 대신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분야는 '생업에 더욱 충실' 32% '취미활동' 30%, '국내외 여행' 27% 등이 응답돼, 자신의 직업과 취미에 보다 집중하며 본인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인 가구 지속 의향*



[그림] 결혼 대신 시간·비용 할애 분야**(중복응답,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21.5. (전국 12세 이상 가구원, 10,998가구, 면접조사/인터넛조사, 2020.9.8.-9.18.)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만25-59세 1인 가구, 2000명, 온라인조사/면접조사, 2019.4.1.-4.21.)



시사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32%로, 29%의 부부+자녀 가구를 추월하여 대세가 되었다. 앞으로도 1인 가구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통계청은 지금부터 27년 후인 2047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7%, 부부+자녀 가구가 16%로 1인 가구가 부부+자녀 가구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3쪽)

1인 가구의 심리적 특징을 지적한다면 외로움과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은 자발적인 외로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1인 가구는 적극적인 선택보다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홀로 되는 경우가 많다. 자발적 외로움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로움이 자신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성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가족은 서로 얽히고 설켜 살면서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간섭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1인 가족은 다른 가족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간섭없이 살면서 혼자 사는 자유를 즐길 수 있다. 1인 가구의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로움을 즐기는 것이다.

교회의 1인 가구 역시 증가할텐데 이는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교회에서 30대 중반 이후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가구와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는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관계망의 차이, 대화의 주제와 내용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같이 교제하기 쉽지 않고 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 게다가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 문화는 1인 가구로 하여금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1인 가구는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가나안 성도가 되거나 교회에서 조용하게 예배만 출석하고 스스로를 드러내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목회에서는 1인 가구 목회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를 것이다.

1인 가구에 대한 목회적 대응은 1인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1인 가구가 되는 경로와 나이를 보면 1인 가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결혼이 늦어지거나 취업 및 학업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청년 1인 가구이고, 둘째, 이혼으로 인해서 분리되는 중장년 1인 가구, 셋째, 자식의 독립과 배우자 사별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노년 1인 가구이다. 같은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이 3가지 유형은 생활 형태와 의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1인 가구에 대한 목회적 대응도 다르게 해야 한다.

1. 먼저 노년 1인 가구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노년 1인 가구는 나이, 건강적 이유로 사회 생활에 제한이 많아서 큰 외로움에 시달릴 수 있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 밖에 없다. 전화 또는 방문 심방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고 두텁게 하는 것도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비혼, 이혼 등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그들을 동등한 관점에서 인정하며 포용할 때 중장년 1인 가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위축되는 일이 없이 편안한 교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3. 청년 1인 가구 가운데는 생업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대체 예배를 제공하거나 홀로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목회적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대형 교회의 경우 30대 후반 이후 비혼자들을 위한 모임도 고려할만하다.

앞으로 교인 수는 줄고 1인 가구는 늘어날 것이다. 인구의 변화가 교회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 변화를 의식하고 그에 따른 대응 목회를 준비하여 시대 변화에 발맞추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미국인의 크리스마스 인식]
미국인, '예수는 2000년 전에 실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72%!
2. [국내 대학 미래 생존율 예측]
국내 대학, 25년 후 현재의 절반만 생존!
3. [국가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현황]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한국' 88kg으로 세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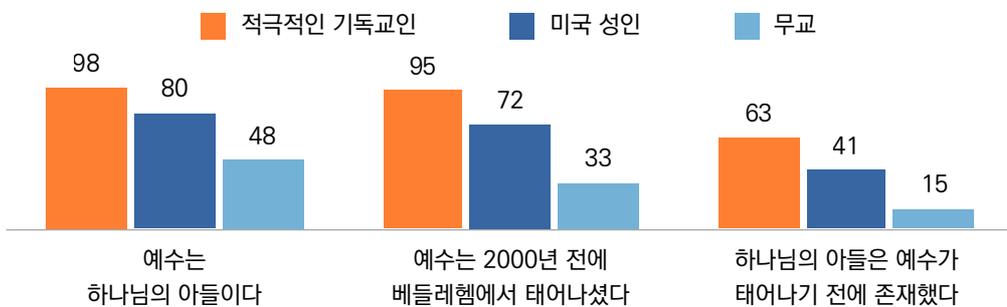
1. 미국인의 크리스마스 인식



미국인, '예수는 2000년 전에 실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72%!

- 지난 12월 초 미국의 Lifeway Research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72%는 '예수는 실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에 동의했다. 크리스천이 아닌 미국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에도 예수의 존재성에 대해 높은 국민적 믿음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 무종교인 경우도 절반(48%)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어, 미국이 기독교 국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에 대해 41%만 동의했는데, 대체적으로 예수 탄생 이전에 삼위일체로서 하나님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 미국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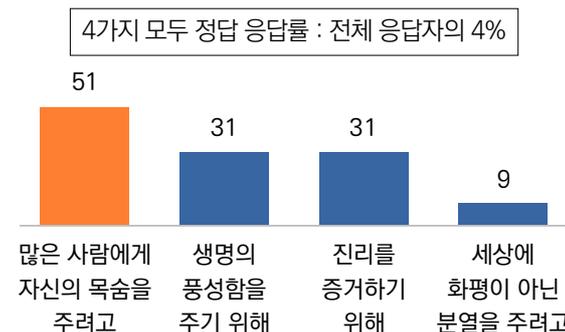


*자료 출처 : Lifeway Research, 'American Views on Who Jesus Was and Why He Came', 2021.12.08.(미국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9.3.-14)
 ** 크리스천타임스 '미 기독교인들, 하나님 아들의 말구유 탄생이전 존재 안믿어', 2021.12.10. <http://kctusa.org/detail.php?number=17908&thread=22r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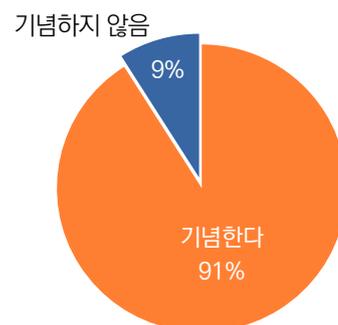
●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인식하는 미국인, 매우 적어!

-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질문했는데, 미국인의 51%만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막10:45)에 응답했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요 10:10),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요18:37)에 대해서는 각각 31%,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주려고'(눅12:51)는 9%만 응답했다.
- 한편, 미국인의 절대 다수(91%)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고 응답했다.
- 크리스마스를 기념(91%)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72%)이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80%)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높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미국인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그림] 성경에 기록한 예수가 이땅에 오신 이유(중복응답, %)**



[그림] 크리스마스 기념 여부



*자료 출처 : Lifeway Research, 'American Views on Who Jesus Was and Why He Came', 2021.12.08.(미국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9.3.-14)
 ** 4가지 정답과 3가지 오답 등 7가지 보기를 제시하여 중복으로 응답받은 결과임

2. 국내 대학 미래 생존율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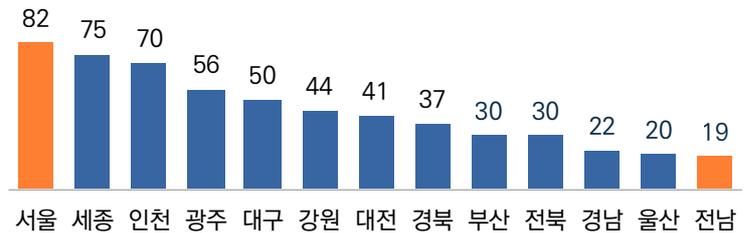
국내 대학, 25년 후 현재의 절반만 생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최근 '미래전망 전문가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85개 대학을 대상으로 미래 전망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25년 후(2042~2046)년 후 국내 대학교 수가 현재의 절반(190개, 49%)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곳, 즉 가장 낮은 생존율을 기록한 지역은 '전남' 19%, '울산' 20%, '경남' 22%로 5개 대학 중 1개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했고, 가장 높은 생존율 도시로는 '서울' 82%, '세종' 75%로 나타났다.

[그림] 국내 대학 25년 후 생존율

[그림] 국내 대학 25년 후 생존율

2021년 : 385개 대학
2042~2046년 : 190개 대학
(현재의 49%)



*자료 출처 : 연합뉴스, 2021. 12.05, '2046년 국내 대학 절반 이상 사라져...청년세대 지역갈등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404590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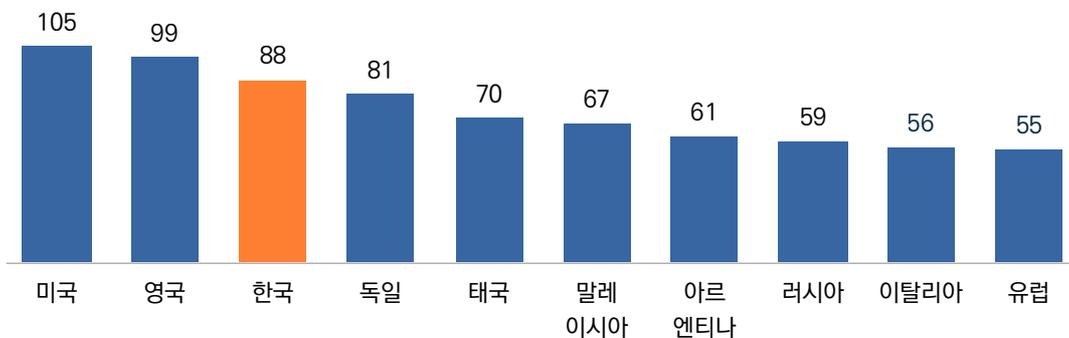
3. 국가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현황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한국' 88kg으로 세 번째!

-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의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미국의 역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88kg으로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105kg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이 99kg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인식'을 보다 더 높여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세계 주요국 플라스틱 쓰레기 1인당 배출량(세계 주요국, 상위 10위, 2016년 기준) (%)



*자료 출처 : 연합뉴스, 2021.12.02., '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3위... 연간 88kg' (<https://www.yna.co.kr/view/AKR2021120207000000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77호\(2021년 12월 3주\) - 대선 후보 지지도, 경제 전망](#)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 이번 주 미시행](#)

〈SBS 대선관련 여론 조사〉

[1. 지지도...이재명 35.4% · 윤석열 33.3% '접전'](#) 2021.12.16.

[2. "후보 배우자, 선택에 영향" 60% 넘어](#) 2021.12.17.

[3. 대선 판도 영향 주는 '3대 지표 추이', SBS 여론조사에선?](#) 2021.12.17.

사회

일반

[신혼 100쌍 중 45쌍 "아이 없다" 대출 18% 늘어난 1억3258만원](#)

파이낸셜뉴스_2021.12.09.

["부모님 용돈걱정 없겠네"...60대 가구주 월평균 소득 352만원](#)

매일경제_2021.12.10.

[상위 소득격차 5.8배...역대 최대 지원금으로 분배 개선](#)

연합뉴스_2021.12.16.

[가구당 빚 8천801만원...40대·자영업자 부채 가장 많아](#)

연합뉴스_2021.12.16.

[서울부부 황혼 이혼, 신혼 이혼 앞질렀다](#)

조선일보_2021.12.16.

['코로나 확진자' 됐다... 3040남성 절반이상 '비만'](#)

동아일보_2021.12.15.

[손흥민 5년 연속 '올해의 스포츠 선수' 1위, 2위는 김연경](#)

한겨레_2021.12.13.

["초미세먼지 노출로 최근 5년간 12만명 숨져" 질병청 기후보건영향평가](#)

동아일보_2021.12.11.

[중소기업 3곳 중 2곳 "디지털화 대비 전략 없다"](#)

연합뉴스_2021.12.14.

청년

[청년 75%가 "내 월급 안 올라"...복권방 물리고 코인에 물리고](#)

매일경제_2021.12.13.

[중고 명품, MZ세대 취향저격... "한번 써보고 다시 팔아요"](#)

동아일보_2021.12.11.

청
년

[10대 그룹 중 7곳 정기 공채 중단, 수시로 뽑는다지만...청년 일자리 상반기 10만개 줄어](#)

중앙일보_2021.12.11.

["한국 무직청년 '니트족' 20.9%...OECD 13개국 중 3번째"](#)

연합뉴스_2021.12.13.

인
구

[50년 뒤엔 절반이 62세 이상...성인 1명이 노약자 1명 부양한다](#)

매일경제_2021.12.09.

[50년 뒤 기대수명 91.2세 'OECD 최상위권'...출산율은 꼴찌](#)

연합뉴스_2021.12.13.

[일하는 인구 64 → 69세 검토...'60세 정년'도 연장되나](#)

중앙일보_2021.12.14.

['83년생 김지영' 4명 중 1명은 출산 시 경력단절](#)

연합뉴스_2021.12.14.

[서울시, 남자 33.61세·여자 31.6세에 결혼해 51.1세·48.3세에 이혼한다](#)

경향신문_2021.12.16.

기
독
교

[한국교회 호감도 31.6점](#)

국민일보_2021.12.16.

[기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률... 5060세대가 2030세대보다 높다](#)

국민일보_2021.12.15.

* 이슈 큐레이션

[‘디지털 고려장’으로 떠밀려 가는 노인들... “우리는 개가 아니다”](#)

조선일보_2021.12.11.

[기획기사] 청년들의 금융 실태 (동아일보)

1. [“사회 첫발부터 빚투 인생”... 청년 부채비율, 중년 추월](#) 2021.11.30.
2. [“학자금 대출받아 코인 투자” “집 엄두 못내 저축 대신 쇼핑”](#) 2021.11.30.
3. [청년 45% “일해서 번 돈으로 자산 못빌려”... 71% 주식-펀드 투자](#) 2021.12.01.
4. [2030 다중채무, 130만명이 150조... 빚으로 빚 갚는 악순환 허덕](#) 2021.12.03.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해설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영관, 고영수,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뜸, 신명자,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희창, 윤동하,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규,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할, 정용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몽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신규 후원 |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